



좋은이웃교회 GOODNEIGHBOR CHURCH

목장나눔지

좋은이웃교회는 감격이 넘치는 주일예배와 사랑이 넘치는 목장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와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씀을 근거로하여 주일은 '온세대공동체'가 모이고, 주중에는 '작은공동체'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공동체: 목장모임은 '나눔중심예배'입니다. 설교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적용점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코이노니아공동체'입니다.



WELCOME

함께 모인 목장원들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자(목자)의 재량에 따라 간단한 게임이나 유머를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식사를 먼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WORSHIP

- 1) 익숙한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예배를 드립니다(15분).
- 2) 찬양은 예비과정인 아니며,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예배를 드리십시오.
- 3) 목자가 항상 인도하지 말고, 은사를 가진 목장원 또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WORD

- 1) 주일설교/개인묵상 나눔 > 예수님 자랑하기(감사) >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2) 말씀나눔은 설교 또는 개인묵상에 대한 적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 3) 예수님 자랑하기(감사)는 한 주간 동안 삶에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 4)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은,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WORK

- 1)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2) 시간이 여유롭다면 한 사람씩 소그룹 가운데에 넣어, 몸에 살짝 손을 얹어 중보기도 합니다.
- 3)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주일설교

제목: 성숙한 신자의 삶은
본문: 히브리서 6장 9~12절

히브리서의 저자는 익명입니다.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데(1:5-2:18; 3:1-4:13절), 그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계시 그 자체입니다(1:1절). 그뿐만 아니라, 그는 대제사장이요, 신자(성도)들의 고난을 체휼하는 분이십니다(4:14-5:10절). 이 서신의 일차적 대상은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권면을 주어 믿음을 지켜 예수를 따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있습니다(10:24-25절).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신자(성도)의 성숙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숙한 신자(성도)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범죄 함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언제나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라며 자신의 범죄를 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0:12절에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성도)는 구원 받은 자로서 자신을 돌아보며, 육체와 영이 날마다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 성숙한 신자(성도)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요한복음 7:24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받으실 때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성도)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성숙한 신자(성도)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사랑’에서 출발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되며,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간을 섬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성도)라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신자(성도)는 항상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좋은이웃교회’ 신자(성도)들은 성숙한 신자(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1. 여러분! 성숙한 신자(성도)의 삶을 어떻게 말합니까?
2. 여러분은 성숙한 신자(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건가요?”

자기 부인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성경은 자신을 부인하고, 심지어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기독교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자주 등장합니다. 만약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이 명령이야말로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작품)이며, 사랑하고 기뻐해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랑받기 위해 내가 바라는 모습과 현실의 내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가장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차이로 인해, 자신의 연약함을 부인하거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점에서 자기 사랑과 자기 부정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신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시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갖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끊임 없는 관대함으로 변화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THINK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장보고서를 주일예배 후에 목장사역센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예배 담당안내					
담당	2월 2일	2월 9일	2월 16일	2월 23일	3월 2일
마을특송	살롬	온유	임마누엘	무지개	행복한
대표기도	하인애 권사	고금희 권사	김미란 권사	박윤미 권사	손숙희 권사

마을별 교회봉사 담당안내					
담당	2월 5일	2월 12일	2월 19일	2월 26일	3월 5일
본당청소	살롬/청장년	온유	임마누엘	무지개	행복한
중식봉사					

주요광고

1. 좋은이웃교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예배 및 영상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2. 월요목양새벽기도회에 적극 동참해주셔서, 기도로 공동체를 함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3. 확대사역자회의가 2월 27일(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4. 학습/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2월 27일(주일)부터 5주간입니다. 각 마을, 기관에서는 인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교회 환경을 새롭게 당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층 누수의 원인을 찾아 주방 바닥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 임명: 청장년마을 담당 교역자: 유천형 목사 / 마을장: 현정훈 집사
7. 파워전도: 부서 및 기관은 해당 주간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매주 '토요일'에 전도합니다(2시 30분/2층 집합).

[금주: 학생부 / 다음 주: 청년부]

교우소식

환우들을 위한 치유 중보기도

김수차 권사/유수림 권사/김해생 권사/이문형 장로/김진석 집사

김태인 집사/이명옥 권사/한정희 권사/이향숙 사모/유춘자 권사/조병양 집사

거룩은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신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